디딤돌 야학에서 만학의 꿈 키우는 장애인 6명

무지는 또 다른 장애…
'배움의 길' 너무 행복해요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디딤돌 야학에서 장애인들이 대학생 교사로 부터 수업을 받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검정고시 준비 등 제2의 삶 향해 밤마다 '열공'

"신체 장애는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만 배우지 못한 것은 저에겐 더 큰 장애였습니다. 지금은 배울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디딤돌 야학(교장 김동효). 교실이라 부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장애인 2명이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사의 설명에 따라 영어 단어를 읽고 있었다.

수업이라고 해봐야 요즘 유치원생들도 충분히 읽고 쓸 줄 안다는 알파벳과 기본적인 영어 단어 쓰기 정도다. 채정희(44·지체장애 3급)씨는 대학생 교사가 가르쳐 준 영어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었다.

채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글을 잘 알지 못해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처음에는 한글을 깨우쳐 볼 생각에 야학을 찾았지만 이제는 영어 공부와 함께 중입 검정고시 준비까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채 씨는 "배우지 못한 무지는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배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영애(47·뇌병변 2급)씨도 이곳에서 만학의 꿈을 키우고 있다. 김씨의 꿈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장애인은 공부를 해봤자 쓸데가 없다'라는 편견 때문에 마음껏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올해 5월 중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씨는 오는 8월에 있을 고입 검정고시 대비를 위해 매일 2~3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다.

김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사회학을 전공해 저같은 여성장애인들이 공부도 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전국장애인야학협회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야학은 전국 29곳에 불과하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사회적인 편견과 교육 시스템 부재로 배움의 기회를 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일 문을 연 디딤돌 야학은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장' 뿐만 아니라 못다 이룬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세상이다.

현재 디딤돌 야학에는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이뤄진 11명의 자원봉사자 교사와 6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수업은 평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아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검정고시 필수 과목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물놀이, 연극 수업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시각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교사로도 활동 중인 김도연씨는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교통수단 지원이나 활동보조서비스 같은 복지서비스가 함께 이뤄져 좀더 많은 장애인이 이곳에서 편하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딤돌 야학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문의 062-265-8025.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최광선

가장 소중한 '하나'

숫자의 단위로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하나'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 한번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

이 하나가 하나로 끝나면 좋을텐데, 이 하나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서 큰 문제가 된다. 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성화는 안델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처음에는 예수의 모델, 1년 뒤에는 유다의 모델이 되서 완성됐다. 이처럼 한 생각과 한 마음은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빚어낸다.

한 생각을 이미 발하게 되면 그것은 업으로 형성되어 인과의 필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결국엔 지금 내가 호흡을 하면서 한 생각, 한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세상에 떠들썩한 큰 사건들이 처음부터 큰 범죄는 아니었다.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미한 한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욕심을 놓지 못한 사람을 원숭이에 비유한 일화가 있다.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원숭이를 생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죽으로 만든 자루에다가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쌀을 넣어서 나뭇가지에 단단히 매달아 놓았다. 그 가죽자루의 입구는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게 만들어 놓았다. 이 가죽자루를 매달아 놓고 얼마 동안을 기다리자 원숭이가 찾아와서 성급하게도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자루 속에 든 쌀을 손으로 움켜쥐고는 흐뭇해 한다.

그러나 원숭이가 자루에 손을 집어넣는 순간 운명은 끝나게 된다. 쌀을 잔뜩 움켜쥔 원숭이는 그 자루 속에서 손을 빼려고 그 어떤 노력해도 헛수고일 뿐이다. 손을 펴고 움켜 쥔 쌀을 놓기만 하면 손을 쉽게 빼내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숲 속을 누비며 살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원숭이는 한 줌의 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자루에서 손을 빼지 못해 토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한 생각 잘못해 하찮은 욕심에 사로잡힌 남은 인생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 진행되는 나의 삶 속에서 한 생각과 한 행동을 소중히 여겨 작은 실수로 인해 큰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불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교무〉

"기기조립·도예 우리도 잘 할수 있어요"

22일 호남·제주권 지적장애인 경진 대회
광주 북구 장애인복지관·조선대서 열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2008년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의 지역 예선이 21~24일까지 전국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호남권,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열린다.

종목은 모든 권역에 공통되는 기본직종과 권역별로 차별화시킨 특화직종으로 나뉘진다. 기본직종은 데이터입력·기기조립·목공·봉제이며, 호남권 특화직종은 도예·종이접기 등이다.

호남·제주권은 22일 광주시 북구 광주장애인 복지관과 조선대 전자정보공과대학에서 열리며, 다른 권역은 22~23일 지역별로 대회를 치른다.

직종별 금, 은, 동 입상자에게는 20~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참가 메달과 장려금 5만원이 지급된다. 금상 입상자는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함께 주어진다.

참가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에 의한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중복장애일 경우에는 주 장애가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인일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학력은 제한 없지만 과거 이 대회에 참가해 입상했던 참가자들은 다른 직종으로 바꿔 출전해야 한다.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노미향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는 깜깜한 방안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장애인들의 편견의 장막을 걷고, 우리 사회를 이끄는 소중한 기술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53-856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난해 6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제7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회 모습.

장애 다룬 서적 잇따라 출간

"장애는 그저 다른 것일 뿐이야. 말 그대로 차이점이지, 절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틀린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세상에는 장애를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장애 문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다룬 어린이·청소년 책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다름 :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씽크하우스)은 일종의 '다큐멘터리 동화' 형식으로 장애의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룬다. 지난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반인을 가르치는 영어 교사가 된 최유림씨의 실화를 동화 형식으로 엮어냈다.

프랑스 작가 알렉스 쿠소가 쓴 '눈먼 소년 미로, 바다를 보다'(푸른숲)는 선천적 시각장애인 소년 미로가 첫사랑과 이웃의 죽음을 겪으면서 커 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성장소설이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미로에게 사랑이 나타난다. 미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은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소녀 '륀'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누나 요세핀'(베틀북)도 다운증후군 여성의 실화를 토대로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이에 맞서는 가족들의 사랑, 우정을 소박하고 담담하게, 하지만 어둡지 않게 그렸다.

옌스의 누나 요세핀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남들과 좀 다른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하지만 요세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지 다 한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음악심리치료 실시

광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오는 8월1일부터 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광주 YMCA 2층 205호 교육실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음악심리치료를 실시한다.

이번 음악심리치료에는 1급 음악치료사가 함께하며, 관계형성을 위한 즉흥연주 ▲감정표출을 위한 감정악기 연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함께하는 Hand Bell 연주 ▲자신감 향상을 위한 노래만들기 ▲음악공연 등이 진행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비 10만원. 문의 062-1388.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